

한국불교학계 세계 중심에 서다

해외 석학 100여명 국내 학술행사 참석... 달라진 위상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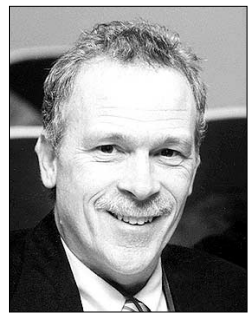
세계 불교학자들이 올해 상반기동안 대거 한국을 찾는다. 대규모 불교학 국제학술대회가 잇따라 열리기 때문이다.

4월 22일 개최됐던 인도철학회(회장 김선근) 제2회 국제학술회의를 시작으로 한국불교학계집대회(대회장 중범), 한국 비구니의 삶과 수행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제8회 세계여성불자대회(대회장 명성), 제1회 세계교수불자대회(회장 연기영)가 8월 중순까지 계속된다. 이 기간동안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 불교학자만 100여명에 이르러 한국불교의 달라진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 제2회 인도철학회 국제학술대회
4월 22-23일 열린 인도철학회 국제학술대회에는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곱브리치(R. F. Gombrich) 교수와 중국 북경대학교 동방학 연구원장 왕방웨이(王邦維) 교수, 인도 델리 대학교 철학과 바트(S. R. Bhatt) 교수가 참석했다.

■ 제2회 한국불교학계집대회
5월 1-2일 이틀간 김포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열리는 제2회 한국불교학계집대회. 170여명의 불교학자들의 결집 속에 40여명의 해외 불교학자들이 포함돼 있다. 한국 불교 전문가로 유명한 일본 토요 가쿠엔대학교 찰스 뮐러(Charles Muller) 교수와 중국 북경대학교 주칭지(朱慶之) 교수, 일본 장가대학교 국제불교학고등연구원 소장 간노 히로시(菅野博史) 교수 등은 저명한 석학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결집대회에 참석하는 해외 불교학자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해 한국불교에 대한 높은 관심을 집적해 했다.

■ 동아시아 불교 전통에서 본 한국 비구니의 삶과 수행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5월 20-22일까지 안양 한마음선원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불교 전통에서 본 한국 비구니의 삶과 수행'에 관한 국제학술회의는 한국 비구니 승단을 주제로 한 최초의 국제학술회이다. '한국 불교사에서 여성의 역할과 활동', '동아시아의 종교 수행에 있어서 법맥과 전통', '여성의 신앙



찰스 뮐러



간노 히로시



바바라 루크



란자니 드 실바



포우 바나



앤 캐롤린 클라인

과 영성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 등 5개 분과에서 23개의 발표가 계획돼 있다. 이 가운데 학술대회를 위해 방한하는 해외 불교학자 10여명과 이들이 발표하는 논문 주제는 면면이 새롭다는 평가다.

특히 콜롬비아 대학교 바바라 루크(Barbara Ruch) 교수는 최근 대학 내에 '여성 불교문화 연구소'를 세웠다. 또 미국 테네시 대학교 미리암 레버링(Miriam Levering) 교수는 동아시아 불교 여성 신 지식들에 대한 연구를 새로운 분야로 정립하는데 기여한 인물이다.

■ 제8회 세계여성불자대회
6월 27일부터 7월 2일까지 김포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열리는 제8회 세계여성불자대회에는 45개국에서 700여명의 여성 불·재가불자와 불교학자들이 참가한다.

대회 본행사인 학술발표대회에서는 '한국의 여성 불자들', '세계의 여성 불자들', '불교 수행과 여성 문제' 등을 주제

로 국내외의 58명의 불교학자들이 발표자로 나선다. 전국비구니회 전 회장인 광우 스님을 비롯해 미국 라이스 대학의 앤 캐롤린 클라인(Anne Carolyn Klein) 교수와 칼튼 대학 종교학과의 파올라 아라이(Paula Arai) 교수가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포우 바나, 란자니 드 실바 등이 참석해 세계의 여성불자들에게 해 발표한다.

■ 제1회 세계교수불자대회
8월 17-19일 3일간 강원도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열리는 제1회 세계교수불자대회는 '대화명명 시대의 아시아 문화와 종교'를 주제로 교수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보기드문 현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4개월이나 남은 대회라 세부적인 준비는 진행 중에 있지만, 대표적인 한국인 불교학자인 미국 스토니부룩 뉴욕 주립대학교의 박성배 교수와 맥코믹 대학교의 전현 교수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인터뷰

인도철학회 참석 중 왕방웨이 교수



인도불교와 중국불교의 교류사를 연구하는 중국 북경대 왕방웨이(王邦維·54·사진) 교수가 4월 21일 내한했다. 인도철학회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한국을 찾은 왕 교수는 "밖에서 본 한국은 기독교 세가 강한 나라로 보였지만, 한국을 3번 방문하면서 한국불교의 왕성한 활동에 놀랐다"고 말했다. 이런 왕 교수의

“한국 중립학교 정말 부러워요”

한국불교에 대한 느낌은 “중국에도 한국처럼 불교계가 설립한 중립학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며 불교학자로서의 부러움으로 옮겨가기도 한다.

왕 교수는 불교를 연구하는데 있어 문헌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불교 역사, 철학, 예술 등 불교를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불교 문헌학은 불교 연구의 바탕이 되는 연구로 필수적”이라며 “특히 인도에 남아 있는 초기의 경전들을 번역하는 작업은 부처님 당시의 불교를 더 가깝게 알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유진 기자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39>



생명과 禪(1)

생명과학이란 생명이 아닌 생명체를 다루는 것이며 생명현상 보다는 죽음이라는 생명체의 소멸 현상을 다루는 것이라고 이미 이야기했다. 한편 과학이란 것 역시 사물을 정리 정돈한 지식이라는 형태로 세상과 자신을 이해함으로 인해 우리가 받아들이는 세상도 그러한 지식체계의 한계 내에 갇혀있음도 지적했다. 이제 비로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생명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가 된 것 같다. 하지만 생명과학이 다루지 못하고 있는 생명을 불교에서는 명확히 포착하고 있다. 생명에 대하여 언급하기 전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되돌아봄으로써 생명을 명확히 하는 것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넘어야 하고, 중요한 것은 자기 생활 속에서 자기가 얼마나 그렇게 될 수 있는 나지요 라고 정말 필요한 이야기를 한다. 정말 좋은 이야기라면 그런 사람들은 부처님 말씀의 자기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돌아서서는 여전히 경전 풀이 공부에 매달려 있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선언해설이나 경전 풀이 책을 쓰기도 하면서 한층 더 지식을 바탕으로 알음알이에 힘을 쓰며 시간을 보낸다. 알음알이로 공부하니 쉽게 무언가 안 듯하지만 결국 삶의 변화와는 무관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이들은 아는 것은 많지만 제대로 아는 것은 하

알음알이 공부하는 삶의 변화와 무관 개념화된 인식 초월 선사들 가르침

대부분의 경우 부처님 말씀이나 조사들의 친절한 가르침에 의해 생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잘 알지만 여전히 자신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왜일까? 그것은 우리가 이성(理性)에 바탕을 둔 지적 사유체제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며 이미 이러한 방식에 길들여져 있어 이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볼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일종의 자기 체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시대는 활자매체나 인터넷 등을 통해 넘쳐나도록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많은 강좌나 모임이 있어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셨는지에 귀에 따가울 정도로 접할 수 있다. 주위에서 조금 공부했다고 하는 지식인들의 공통점은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는 '그런 것은 다 알아요. 말도 뛰어

나도 없는 것이다.

선사들이 비유와 상징으로 말하는 것은 원래 모습(본분), 생명이 우리의 개념화된 인식을 뛰어넘기에 그렇게 하거나 또는 공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풀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길들여진 인식을 바꾸기 위함이다. 듣는 이가 자신의 길들여진 눈과 귀를 보고 들으니 어렵게 느껴질 뿐이다. 선사의 어록을 남듯 가도록 풀이하거나 이해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자꾸 일러고 하지 말고 오직 모른다는 마음을 바탕으로 하여 그저 믿어 체념하지 않는 용기와 간절함으로 공부할 지어 나아가 참 생명을 만나야 한다. 알거나 이해하려 하지 말라.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겠지만, 생명의 세계에서는 아는 만큼 보이지 않는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SHIM

고려대장경의 오자·파자 4만9천여자

고려대장경연구소 '고려대장경 감교록' 출간

고려대장경 5천 2백만 자(字) 가운데 신수대장경과 비교했을 때 나타난 오류는 모두 20만자. 이 가운데 4만 9천여자의 오자·파자를 모은 <고려대장경감교록(이하 감교록)>이 출간됐다.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중범·이하 연구소)가 발간한 <감교록>은 고려대장경 전산화를 추진하면서 고려대장경과 신수대장경의 글자 하나하나를 직접 대

조해 분석한 결과를 책으로 낸 것이다. <감교록>은 고려원문 오자 130여자, 고려원문 파자 23,970여자, 신수원문 파자 190여자, 신수원문 오자 580여자, 판

본차이 24,430여자를 담고 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살마하살'을 '보살마보살(菩薩摩訶薩)'로 판각한 오자, '三' 자가 마모돼 '二' 또는 '一'로 나타나는 등의

오류가 있다. <감교록>에 포함되지 않은 이체자(異體字)를 포함한 15만자는 곧 출시되는 '고려대장경 2004'에 수록된다.

연구소장 중범 스님은 "이번 감교록은 고려대장경이 신수대장경에 내어준 한역 텍스트 자리를 되찾기 위한 연구 성과"라며 5월 1일 한국불교학계집대회에서 <감교록>을 직접 소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C · O · N · C · E · R · T · F · O · R · B · U · D · D · H · A

BBS 대구불교방송예술단 연주회
맑은소리 향기로운 만남!

BBS 대구불교방송예술단 연주회
맑은소리 향기로운 만남!

일시 : 2004. 5. 3(월) 19:30
장소 :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강당

주최 : BBS 대구불교방송
주관 : 대구불교방송예술단
후원 : 대구불교방송 후원회

단장 : 최경순 | 음악감독 : 이병배 | 출연 : 대구불교방송예술단 교향악단, 중창단, 국악단 | 지휘 : 류성욱 | 특별출연 : 서연스님 | 사회 : 최현대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2동 156-1번지(진각빌딩 8층) / TEL : 053)427-5114 FAX : 053)427-4433 www.dgbs.co.kr